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리바이벌 96 대회’ 9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청년, 대학생의 영적 각성 고취 10월 25일(금) 충현교회에서 3,000여명이 기도회 대학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나설 때

리바이벌 96 대회(공동대회장 / 홍정길, 김동호, 박영덕 목사)가 9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회원 교회와 선교 단체 및 각 캠퍼스 기독연합회가 주최하여 열리는 이번 대회는 · 청년 대학생 사역자 세미나 · 학교별 대회 · 총집결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캠퍼스별 기도회와 영적 각성 집회, 불신자를 위한 복음전도집회 등을 계획하며 진행하여 학원 내의 모든 복음주의권의 학생과 단체들이 모여 일대 각성과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창천교회에서 막을 올린 청년, 대학생 사역 세미나는 ‘복음주의 청년 학생 운동과 부흥’을 주제로 진행된다. 홍성건 대표(예수전도단)의 ‘이 시대에 왜 부흥이 필요한가’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장봉생 목사(충현교회, 대회 진행위원장), 고직환 전도사(사랑의 교회), 정인식 목사(CCC),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김홍기 교수(감신대), 정의훈 목사(ESF) 등이 ‘부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해 왔다.

10월과 11월에는 학교별 대회로 각 캠퍼스 기독 학생 연합체가 중심이 되어 연합합동기도회, 복음전도집회, 영적 각

성 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대회는 학생 뿐만 아니라 각 선교단체 간사, 기독 교수, 교직원, 기독 동문이 함께 참여

하여 학원 복음화를 위해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총집결대회가 10월 25일(금) 오후 5시부터 전야 기도합주회로 충현교회당에서 3,000여명의 젊은이가 모여 기도함으로 시작된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하나되게 할 것이다.

10월 26일(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총집결대회가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2만



여명의 청년 대학생과 사역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사랑의 교회의 옥한흠 목사가 설교하고 충현교회 대

학부 지도인 장봉생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될 이 대회는 수도권 기독 청년, 대학생이 모여 각 단체 및 교회별 발표회, 경배와 찬양, 말씀 선포, 비전 제시, 합심기도, 기독 학생 선언문 채택, 연합중보기도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대회 준비위원장 전병욱 목사(삼일교회)는 “세기말마다 하나님은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다. 한총련 사태 이후 대학 연합 조직이 와해하고 있는 영적 공백기에 열리는 리바이벌 96 대회는 캠퍼스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89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대학청년들을 위한 대회로 모여 왔었다.

노회에서 피택 장로 고시

동서울 노회는 오는 10월 7일(월) 동현교회당에서 노회 장로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고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5월 19일에 피택된 10명이 응시한다. 피택자들은 피택 이후 6개월 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임하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성경 암송, 통독 집회

10월 7~10일, 충현기도원에서

요한선교단에서는 성경 암송, 통독 집회를 오는 10월 7일(월)~10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집회는 숙식을 하며 4일간 진행되는데 회비는 7만원(초, 중, 고등학생은 5만원)이며 20명 이상이 단체로 신청할 시는 할인도 해 준다. 강사는 박종면 목사이다.



기공감사에배

충현제2동산 관리동 신축 기공감사에배가 9월 30일(월) 오전 11시 충현제2동산 현장에서 열렸다. 건축위원장 남선우 장로의 사회, 김여순 장로의 기도과 경과보고, 김창인 목사의 ‘하나님과 더 가깝게’(시 73:24-28)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관리동 신축 공사는 충현동산 공원과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충현동산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하는 교인들의 불편이 있어 새로운 관리동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었다. 새 관리동은 연면적 150여평의 2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및 휴게실, 2층은 관리인 사택으로 쓰이게 된다.

제2회 주부교양강좌

첫째 강의 10월 10일(목) 오전 10시

원동연 교수의

‘자녀 교육’(입시생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DY 학습법)

전 도위원회에서는 제2회 주부교양강좌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주부교양강좌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강의와 함께 교회 분위기를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좌도 기독교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주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 교육, 부부 대화, 자기 정체성, 피부 관리, 노래 부

르기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다.

주로 교회내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여 함께 강좌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여전도회 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이 크게 요망된다.

금주에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이며 한국 창조과학회 부회장인 원동연 교수가 자녀 교육(입시생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DY 학습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된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33:1-5)

본 시편은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작 배경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1. 찬양할 자가 누구입니까(33:1)

(1) 의인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되 찬송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찬송을 듣고 악마가 무서워 해야 됩니다. 셋째, 믿는 사람이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안 믿는 자에게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송은 영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찬송의 값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는데 그러면 누가 찬송할 수 있는 의인입니까? 세상에는 네 가지 의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칭 의인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선전하며 뽐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칭 의인은 안됩니다. 둘째,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찬송은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다. 셋째, 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넷째, 말씀대로 살려고 조심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범하려고 결심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조심할 때, 그 사람의 찬송이 값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값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됩니다.

(2) 정직한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찬송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된 나까? 첫째, 이해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손해를 안보려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즐겁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즐거워 하면 이해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협을 면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속에 숨는다고 신변이 보장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영육이 살게 됩니다. 셋째, 과장되게 선전하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선전을 한다면 하나님은 섭섭히 여기십니다. 넷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모르는 사이라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에 열

번, 스무 번이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뿌리를 못 뽑습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습관성 거짓말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다섯째, 간악한 마음에서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섯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지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할수록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만 두고 마귀의 아들, 딸로 족보를 고치겠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양심대로 말하고 행하여 그 다음에는 매를 맞든지 칭찬을 듣든지 겁내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정직한 사람이 찬송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찬송을 무엇으로 합니까(33:2-3)

(1) 도구를 가지고 합니까

수금(수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열 줄 비파는 아주 좋은 비파입니다. 이 말은 좋은 악기를 충동원 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금기문고를 타고 황금종을 울리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충동원 하라는 말은 좋은 기술을 다 내놓고 온 정성을 쏟아 찬송을 부른다는 뜻도 됩니다.

(2) 새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해서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 불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것, 낡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새 옷, 낡은 옷이 없습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노래를 부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죄를 범하던 마음을 떠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에 죄 사함을 받은 새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웃으면서 부르다가 울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를 때는 웃으면서 부르다가 두 번, 세 번 부르면 마음에, 영혼에 감동이 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울고, 좋아서 웃게 됩니다.

3.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33:4-5)

(1)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니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정직하심을 찬송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힘이 모자라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재산도 권능도, 모자랄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나 태양의 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질서있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2)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일을 모두 다 사전을 찍어 놓으시고 녹음해 두십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녹음기에 녹음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한 것 모두를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심판하시니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세상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인자가 넘쳐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만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하신다면 사람들의 때릇에 너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하나님에서므로 공의롭게 벌을 세우셨다가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도 회개만 제대로 한다면 자비를 베푸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이 많습니까? 노여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에 대해서 사랑이 한없이 크십니다.

사람은 열 번 신세를 지다가도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 번 범죄하고도 한 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로서 앗수르는 6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세계 각국에서 빼앗아온 것으로 먹고 입고 호화롭게 사는 도적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잔인한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이렇게 잔인하고 사치하고 음란하며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을 600년 동안 쌓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요나로부터 40일 후면 멸망하리라는 선언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서야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외식하는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흘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600년 동안 범죄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 후에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600년 범한 죄를 사흘간 회개하고 용서받은 니느웨, 그러나 100년 후에 아주 자취가 없어진 것은 그때 회개를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용서해 주셨다고 베풀 없이 굴다가는 또 다시 매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언제나 머리에 기억하면서 조심하고 거침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니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는 정직하심을 찬송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고는 지난 8월 중순 집중 호우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낸 가운데
시신도 못찾고 희생당한 고 김준모 일병의 어머니가 쓴 글과
고 김준모 일병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 김준모 일병은 유치부 시절부터 우리 충현교회에 출석한
충현교회의 성도입니다.(편집자 주)

고 김준모 일병의 삶의 행진

이 순 옥

(집사, 42교구)

지금부터 19년 전 충무로 성전 시절 유치부에 다닐 때 남산에서 수도 노회 그림 그리기가 있었을 때 준모는 특선을 했지요. 유년부(초1) 암송대회에서 장려상을 땀습니다. 이밖에도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때와 요르단 국왕 방한때 화동도 했답니다.

"엄마! 교회 오래 다녔으니 그만 다니면 안될까요?"라고 하던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중등부에 잘 다녔습니다. 고등부엔 찬양대도 하고 입시 공부도 했지만 인문대학에 낙방을 했지요. 재수생이 되었을 때 아인하이트 남성 중창단을 하면서 입시 미술학원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드디어 8개월 뒤 홍익대 미대라는 멋진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 다.

대학생이 된 아들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작품까지 만들어야 하니 또 바빴 습니다. 작업 중에는 집에도 못오고 작 업을 하여 졸업할 땐 1등이라는 좋은 성 적으로 졸업을 하고 작품은 대상을 받아 포상으로 미국 산림청 초청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그동안 영장이 나왔지만 가기도 싫 고 다녀와서 공부하면 감각이 없어 좋 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고 군 입대를 미 려했습니다.

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제자들도 축하했죠.

미대 입시생을 가르치는 아들은 1차 에 떨어진 2차 지방생을 두고 군에 갈 수 없다고 그 거울을 미루고 올해 2월 6 일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5사단 신병훈 련소에 입소하여 두 달 간의 훈련을 마 치고 포상으로 3박 4일 휴가를 왔었죠. 귀대하여 다른 작전반으로 나갔는데 신 병훈련소에서 신병들 조교로 불러 들였 어요. "엄마 난 가르치는 데 자신 있어 요"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조교 공부를 마친 다음날 25년 3개 월만에 바쁘고 힘들고 재미있던 세상에 서의 모든 행진을 끝내고 시신도 볼 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남기고 천국으로 갔답니다.

천국에 조형 가구 디자이너, 실내 장 식 디자이너, 찬양 잘 부르는 젊은이가 필요했을까요? 아들이 보내온 편지 한 장을 소개합니다. 42교구 이순옥 집사 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

전학보다는 편지가 좋은 것 같 습니다.

날씨가 무척 따뜻하고 제 마음 도 따뜻합니다.

창고에 고양이 새끼를 세 마 리 낳아 키우고 있어 가끔 가서 어머 고양이가 없으면 먹여 주고 옵니다. 선입하사가 다람쥐를 어 디선가 잡아먹어서 다람쥐도 먹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대대 다락방교 회 저녁 예배성고 중 다니엘에서 서 좋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목사 님께서 전해 주신 어느 유명한 사 람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I have problems but They don't have me(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시련들이 나 를 가질 수는 없다.)"

어머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 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작 됩니다. 준혁이라고 싸우시지 말 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잘 된 것을 대비해 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 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지 계획 세우시고 기억해 두세요. 곧 내일 모든 일이 해결될 것입니 다.

사랑해요! 엄마!

저는 좋아요. 기분도 여건도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있는 것 같 고 저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 요.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1996. 5. 26

준모 드림

시월의 감사

더위에 찢긴 가을 대풍에 아물고 투명한 햇살은 들녘을 수놓아 빈가슴 속속들이 소복히 안겨주는 풍요의 계절 넉넉한 가을 하나님의 선물 풍년이어라.

한낮 웃는 당신의 따가운 빛 농부의 흘린 땀 알곡이 영그는 알알이 주렁주렁 미소로 살오르고 원색의 황혼속에 무르익은 들판 하나님의 선물 풍년이어라.

가을은 해산하는 여인마냥 초승달도 별을 먹고 먹어 만월되고 바쁘게 일궈왔던 푸짐한 마음 받는 것보다 주는 우리네 인심은 하나님의 선물 풍년이어라.

한알의 씨앗 맺은 결실 알알이 사랑 듬뿍 춤추는 오희백과 풍성한 은혜와 추확(秋穫)의 감사는 당신의 눈동자 머문 황금 들녘 하나님의 선물 풍년이어라.

주님과 마주 보며 꽃 피우는 얼굴엔 기도와 찬양이 풍년을 이루고 평화가 있는 곳 넓은 들녘에 이웃의 열매가 주님께 알곡되는 하나님의 선물 풍년이어라.

김운 섭(집사, 초동3부 교사)

대학복음화를 위해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장 봉 생

(목사, 선교위원회, 대학부 지도)



그 동안 대학은 재야세력과 선교단 체의 주무대였습니다. 재야는 소 위 운동권 학생들을 통하여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고, 선교단체는 헌 신된 간사들을 통하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운동도 시들해지고, 선교단체의 캠퍼스를 향한 열정도 많이 퇴조했습니 다. 어느 대학생의 말대로 대학에는 주 인이 없습니다. 물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학을 사랑하여 경쟁력을 향한 노 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캠퍼 스의 주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대학이 되 도록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적 극적으로 대학을 책임져야 합니다.

60만 군복음화만큼 이나 200만 남녀 대학생 의 복음화는 절박합니 다. 이들이 미래 지도자 들입니다. 이들이 변하 면 한국 사회가 변합니 다. 이것을 아는 악한 세 력은 순수하고 독목한 젊은이들에게 이태울로 기와 사이비 이단 종파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

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 대학입니다. 대학과 대학생들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



까?

대학복음화를 위하 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일 입니다. 개인적으로 기 도하고, 공적 모임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하면 변합니다. 기도하 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둘째,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교회 대학부의 캠퍼 스 사역자들과 선교단체의 간사들(이들 은 가난합니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의 전도프로그램과 신앙

집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학교마다 기 독인연합회가 있으며, 몇 학교에는 교목 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신앙행사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실력 있으면서 가난한 대학생들과 장차 교수 요원이 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학 안에 있는 사람들(교 수, 직원, 학생 등)에게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권고하고 격려하 는 일입니다.

올 가을에는 대학에 영적 각성과 신 앙 부흥이 일어나도록 리바이벌 96 대 회(진행위원장:장봉생목사)를 개최합니 다. 이 대회는 대학의 건전한 선교단체 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 청년 대학부의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 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하 나님을 높이고, 지성의 요람인 대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한국 사회 와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 장 현명한 투자는 가장 중요한 일에 시 간과 물질을 쏟아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대학 복음화를 위하여 나설 때 입니다.

토막소식

▶ 유치부에서는 오늘(열매과)과 13일(꽃과)에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한편 교사들의 사명감 고취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13일 4부예배 후 충현기도원에서 교사강습도 가질 예정이다.

▶ 초등1부는 10월을 학생 대심방 기간으로 정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 초등2부에서는 오는 10월 20일 새친구 초청 반별 찬송대회를 실시한다.

▶ 초등3부에서는 오는 성경이야기 대회를 실시하며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새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갖는다.

▶ 초등4부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새친구 초청 잔치를 실시한다.

▶ 초등6부에서는 오는 10월 20일을 안드레 초청 주일로 정하고 대신자를 작성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 고등부 학생회에서는 '96년도 중창 페스티벌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고등부 출석 회원, 친구, 학교 선후배이다. 이 페스티벌의 참가 신청자들은 다음 주(1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매주일 고등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발표회를 갖게 된다.

▶ 청년2부에서는 오는 11월 3일 초청전도대회를 실시한다.

▶ 소망부에서는 오는 10월 27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빌립보서 3장 1-21절이다.

▶ 사랑부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사랑부 예배실에서 교사특강을 실시한다.

▶ 에바다부는 오늘 집회 후 신앙성숙에 도움이 될 비디오 시청을 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퀴즈대회와 사진 콘테스트를 갖는다. 이 행사는 집회실 공사로 한 주 연기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기독교학도의 진로지도

택의 자녀, 진로지도 어떻게 하세요?

중등3부는 자녀의 진로문제를 놓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자녀의 진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강사: 노은영 집사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사)
- 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교육관 507호

함께 지켜야 할 주차지침

1.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2. 1부, 4부예배
주일 1부와 4부예배시에는 본당 앞에 주차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3. 지체없이 이동
주일 2부와 3부예배시에 본당 앞과 교육관 및 선교관 앞뒤에 주차하신 성도들은 예배 후 빨리 이동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4. 종일 주차
아침에 와서 저녁 찬양예배 후 귀가하는 장로, 안수집사, 직분자 및 종일 주차자는 반드시 제2교육관 지하 3, 4층을 이용해 주십시오.

5.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6. 통로에 주차
통로에 주차하는 성도들은 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② 기어는 중립에, ③ 핸들은 똑바로 하여 주차해 주십시오.

7. 장시간 주차시

통로에 장시간 주차시에는 수시로 확인하여 주차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8. 방향지시등
주차장 출입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안내자들이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9. 주차선
차량을 주차선 안에 정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10. 배기가스
배기가스가 화단이나 건물벽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1. 안내에 적극 협력
주차의 명랑한 분위기를 위하여 웃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주시고, 안내자의 안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12. 승용차 주차
교회 및 제2교육관 지하 주차장은 반드시 승용차만 주차해 주십시오.

13. 경유 사용차(봉고, 트럭 등)
경유 사용차(봉고, 트럭 등)는 매연으로 인한 옥내 공기 악화 관계로 옥내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이집트 ▶



교회 개척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열어

이준교
(목사, 이집트 선교사)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람과 이집트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는 충현의 온 성도들과 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몇 가지의 소식을 전하여 드리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졸업식 거행

카이로 시내의 카스르도바라교회당에서 지난 5월 31일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제125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마흔 한 명의 졸업생들과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축하객들로 식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주간 17명, 야간 6명이 신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고 열 여덟 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단인 신학생 여섯 명이 저로부터 지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카이로 한인교회 출석 교우들이기도 합니다. 카이로 한인교회에서는 저들에게 졸업기념으로 양복 한 벌씩을 선물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단인 교회 개척

금년도 신학교를 졸업한 수단인 사역자 P전도사와 함께 카이로 시내에 수단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시작해서 지금 세달째 모이고 있습니다. 애굽 현지인 교회당을 빌려서 모이는데 얼마 전 집회 인원은 장년과 어린이 모두 합쳐서 62명이었습니다.

지금 카이로에는 2백만이 넘는 수단인 난민들이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역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수단인 초청 전도집회(부흥집회)를 개최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개최

지난 해에 열렸던 COME 세미나에 참석했던 애굽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6월 17일~20일 알렉산드리아의 아가미 수양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 개발과 교회 성장’

이라는 주제로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설흔 세 명의 목회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서울 왕십리교회 오치용 목사님과 알렉산드리아미국인교회의 레이 스코트 목사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금번의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경비 일체를 후원하여 주신 충현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 참석

7월 22일~26일
미국 시카고의 빌

리그레함 센터에서 모인 제3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 800여명이 금번 대회에 참석했고 3천3백명의 참가자들이 닷새 동안 모여서 대회를 가졌습니다. 금번 대회 기간에 수백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대회 기간 중 7월 25일 오전 '선교 도전' 시간에 이집트의 선교 보고와 아울러 선교 도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 복음화 전도대회

6월 27일 카이로 시내 자이툰교회에서 개최된 애굽 복음화 전도대회에서 제가 교회 성장에 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오는 9월 중에 또 다른 전도집회를 가지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이를 동안 강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은 낮기 온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부족한 사람과 저희 집사들의 건강과 역량을 위하여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제125회 졸업식을 마치고 수단인 신학생들과 함께

◀ 애굽인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알렉산드리아 아가미수양관에서 열렸다.